

# 부산시-엘튼, 약 1兆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추진

서부산 균형 발전 위한 관광지 조성  
사하구 다대포 일원 공모 대상 추진  
체험·관광시설 조성, 재정비 시행  
엘튼, 5성급 관광숙박시설 건립

부산시는 6일 시청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하구, 엘튼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이갑준 사하구청장 그리고 민간 투자자로 박재복 엘튼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부산 균형 발전을 위한 대표 거점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물론 주변 관광 기반 시설 조성에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하구 다대포 일원을 공모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자원 개발·보전과 민간 투자를 연계



부산시청.

해 기존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기반 시설과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사하구 다대포 일원은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등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과 잠재 수요객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남해안권 균형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양·지역 문화·자연 생태를 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 창출이 가능한 최적지로 이번 사업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올해 초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2곳이 선정될 예정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비지정과 본지정을 거쳐 기본 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다대포 일원 약 40만 평에 대해 민간 투자 약 8000억원, 재정투자 약 2000억원 지원, 총 약 1조원을 투자해 다대포 일원을 서부산의 대표적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반 시설로는 ▲복합 해양레저공간 ▲인공서핑시설 ▲해수풀장 ▲해양치유센터 등의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해안선 정리, 연안환경 조성 등의 관광자원 재정비를 시행한다.

한편, 엘튼은 지역 중견 건설사인 지원건설이 이번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다대소각장 부지에 글로벌 수준의 5성급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1만 2882.6㎡ 토지에 총사업비 약 60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2만 5469.9㎡ 규모로 호텔과 콘도미니엄 398실의 호텔&리조트를 건립·운영할 예정이다.

다대소각장 부지가 개발되면 다대포 일원에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 부지 재개발 등 '다대뉴드림플랜사업'과 함께 서부산의 관광 동반 상승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다대포 일원을 해양·해안·지역문화·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해 서부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구도를 선보일 것"이라며 "앞으로 다대포 지역이 해운대 등 동부산권, 북항권과 함께 우리 시 3대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경주농특산물판매장 불국점 전경

### 경주시

#### 농특산물판매장 특별 할인행사

경주시는 이달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주농특산물판매장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주물 ▲경주농특산물판매장 본점(황남빵 본점 사거리) ▲불국점(불국사 상가 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할인 대상 품목은 2023년 K쌀브랜드 대상을 받은 이삭쌀과 지난해 서울국제수산물품전시회 쇼케이스 어워드 금상 수상작인 멸치액젓을 비롯해 버섯, 벌꿀, 들기름, 미역 등 고품질 농수산물과 경주의 특색 있는 기념품까지 다양하다. /경주(경북)=최희준 기자 asdadx@

## 광주시, '10시 출근제' 참여사 모집

초등학교부터 자녀돌봄 고충 해소  
참여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올해부터 지원건수, 지원액 확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각 장려금'으로 불리며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는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중·고등학교부터 근로자가 최대 2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

식이다.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는 학부모들에게 임금삭감없이 1시간을 근로 단축한다는 점과 사업주 및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별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광주시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는 저출산 해결의 선도모델로써 사업장의 고용 유지·근로자의 돌봄 고충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건수와 지원액을 확대했다.

올해 지원건수는 500건으로 지난해 300건보다 크게 늘렸으며, 건당 지원액도 지난해 월 37만400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울산시-석유공, 동해 석유가스자원 개발

탄소중립 업무협약 등 체결

울산시는 6일 시장실에서 한국석유공사와 동해 석유가스자원 개발 및 탄소 중립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 수소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와 에너지 허브 울산남향사업, 동해 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실증 사업 등을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상호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참석, 앞으로 ▲동해 석유가스자원 개발 ▲지

역 신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동해 심해 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 암모니아 공급 체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에너지 허브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협의체 구축 ▲시범 및 실증 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 대응 ▲산·학·연·관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이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는 다양한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김해시, 올해 환경분야에 2186억 투입

'지속 가능한 글로벌 환경도시' 목표

김해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환경도시'를 목표로 환경 분야에 지난해보다 433억원 증가한 2186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환경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 중립 ▲탈(脫)플라스틱 필(必) 자원 순환 ▲아름답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1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김해시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지

속가능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김해시 환경교육종합계획('26~'30)을 수립하고 ▲환경교육주간(6월 4~10일)을 운영해 환경 음악회 및 공모전 개최 등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강화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등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등과 함께 화포천습지의 세계적인 명품 습지 도약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는 총사업비 311억원을 투입해 체험형 전시시설을 올해 6월에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 하동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경남 1위'

총 모금액 6억6800만원 달성

하동군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압도적 기세로 총 모금액 6억 6800만원을 달성하며 경남도 내 1위를 차지했다.

6억 7000여만원의 모금액은 목표액 5억원을 134% 초과 달성함은 물론 2023년 모금액 4억 300만원의 165%를 웃도는 기록이다. 이로써 하동군은 2년간 누적 모금액 1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동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였던 열악한 지방 재정 보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부합하게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성과는 모금액 질도 우수하다. 총 5094명이 참여해 1인당 평균 13만 1000원을 기부했다. 일부 고액



하승철 하동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경남도 내 모금 1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동군

기부에 이르지 않고 다수 국민의 참여를 끌어낸 결과다.

기부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2023년엔 경남(40%), 부산(19%), 서울(10%), 경기(9%) 순으로 이웃 고장의 참여율이 높았다. 그러나 2024년에는 경남(34%), 부산(13%), 서울(14%), 경기(16%)로 참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 대구시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시행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이 기간 대구시 동구에 설치된 대구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한 사람 숫자가 225명으로 전국 최다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았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울주군

####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 '최우수'

울산 울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상태와 운용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한다.

울주군은 ▲사업비 편성 비율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등 여러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동종 군 유형 지자체 중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 산청군

#### 산청사랑상품권 126.7억 발행

산청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6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126억 7000만원 규모의 산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상품권 발행 예산은 전액 군비로 편성했으며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